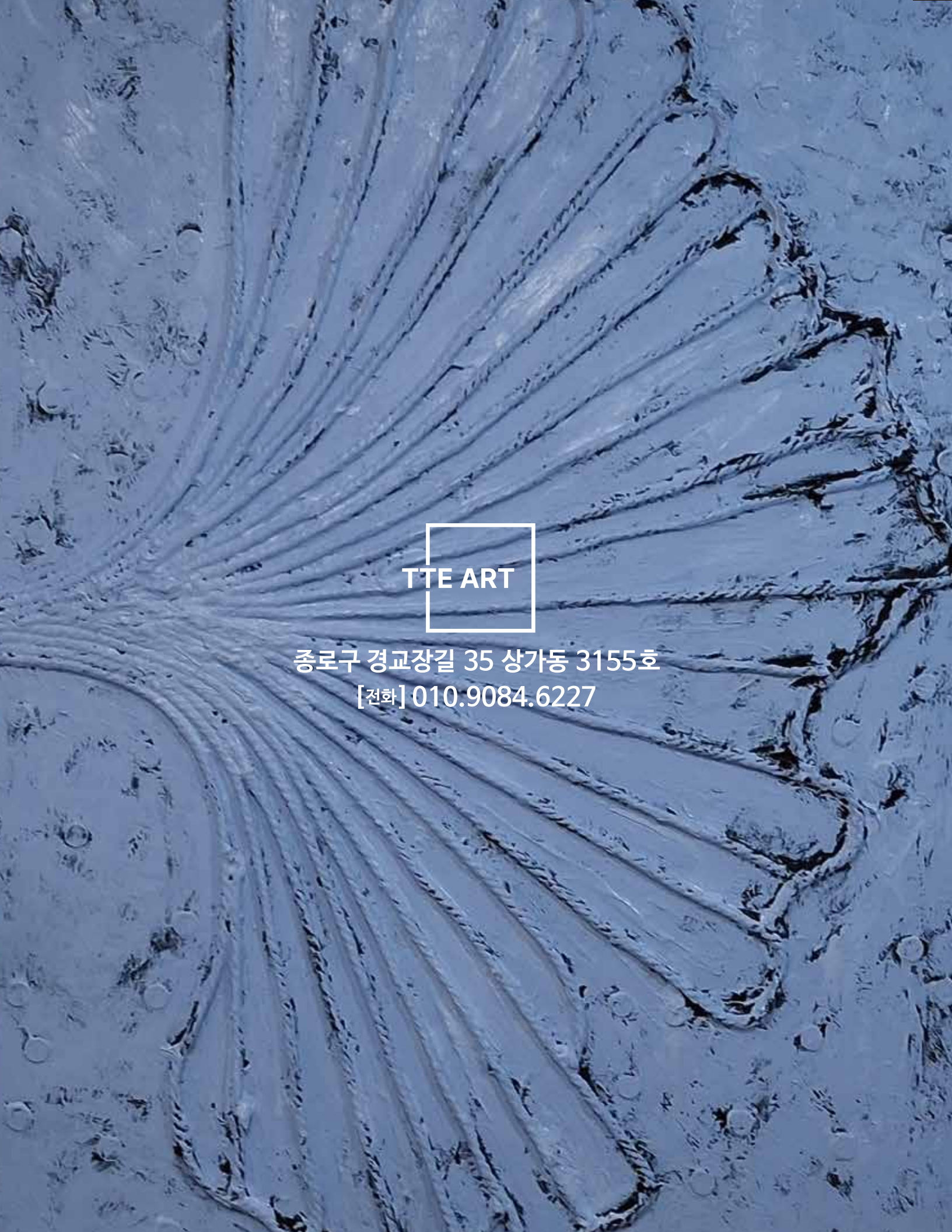

TTE ART
종로구 경교장길 35 상가동 3155호
[전화] 010.9084.6227



BUYONG HWANG RESURRECTION

황부용 '부활' 떼아트갤러리 초대전 2026.11.3–11.14

▶ CAC의 평론에 대하여

CAC는 CONTEMPORARY ART CURATOR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국제 현대미술 전문 매체입니다. 2014년 창립된 이후 신진작가에서 중견작가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현대미술가들을 소개하고 인터뷰, 작품평론, 아트북 출판, 미술상 선정 등의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 역시 CAC 와의 인연이 짧지 않습니다. 2021년에는 'TRENDS IN ART: INSIGHTS FOR COLLECTORS' 2023년에는 'TOP CONTEMPORARY ARTISTS TO WATCH IN 2024' 등의 출판 작업을 통해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2021년 3월부터는 제가 디자인한 회사 로고를 CAC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CAC는 과거 저와의 장문 인터뷰를 통해 제가 그래픽디자인에서 회화로 이동하게 된 과정과 '힐링 그래피즘' 그리고 제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플라타너스 잎과 벌새, 실루엣 등의 조형적 의미를 상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CAC로부터 뜻밖의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FUTURE OF ART GLOBAL MASTERPIECE AWARD' 수상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CAC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상자 명단에도 'BUYONG HWANG'이라는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CAC 측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접촉하고 소개해 온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작가들을 선정했다는 취지로 이 상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상을 세계 최고 권위의 미술상인 것처럼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CAC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미술기관이라기보다는 2014년 창립 이후 국제 현대미술계에서 자신들의 영역과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비교적 젊은 전문 매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CAC를 현대미술계의 '양팡테리블'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미 완성된 권위에 기대기보다는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작가를 찾아내고, 출판과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그들을 국제무대에 소개하면서 스스로의 권위를 만들어가는 젊은 미술 전문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편집진은 발행인 마르타 푸이그, 편집인 안나 홈즈, 부편집인 베로니카 와인버그, 진행감독 스테파니아 앤더슨 등입니다. 대규모 미디어 기업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작은 전문 인력이 국제적인 작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형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외형적인 규모보다 활동의 지속성입니다. 2014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국가의 작가들을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인터뷰와 평론을 축적하고, 단행본과 수상 작가 캐더로그까지 꾸준히 발간해 왔습니다.

제가 받은 'FUTURE OF ART GLOBAL MASTERPIECE AWARD' 역시 2024년 11월 301쪽 분량의 별도 영문 캐더로그로 출판되었습니다. 저에게 CAC의 평론과 수상은 제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보증서가 아닙니다. 예술의 가치는 어느 하나의 상이나 평론만으로 결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작업해 온 한 작가의 작품세계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해외의 미술 전문 매체에 의해 발견되고, 여러 해에 걸쳐 출판과 인터뷰, 평론 그리고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BUYONG HWANG
RESURRECTION

HEALING GRAPHISM STUDIO

2305-1907 LH Apt.
65 Janghyeonjanggok-ro
Siheung-si Gyeonggi-do
14996 Republic of Korea

+82. 10. 4113. 5904

buyong
.com

이 작품집에 실린 글과 그림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6. Buyong Hwang.
All rights reserved.

BUYONG HWANG RESUR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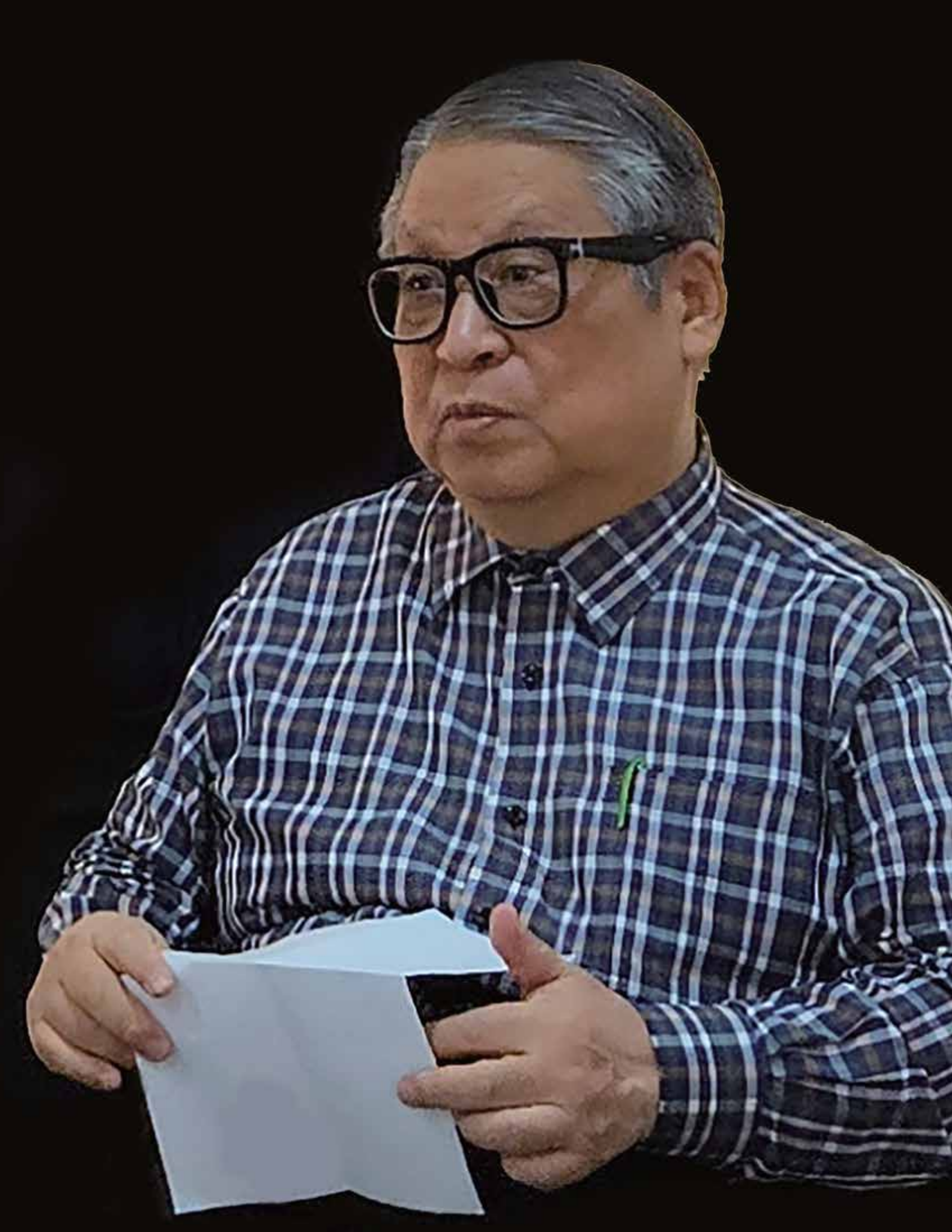
황부용 '부활' 떼아트갤러리 초대전 2026.11.3-11.14

오프닝 리셉션
11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주차] 서울시 교육청 공영 주차장



TTE ART



황부용 작가의 2023년 작품 ‘부활 23-18’은 예술적 탁월함과 재료 혁신의 빛나는 증거로, 존경받는 예술의 미래 지구촌 걸작상을 수상할 만한 수작입니다.

미술 평론

예술의 미래 지구촌 걸작상 심사위원단 및
CAC 매거진 편집인 마르타 푸이그/
2024년 9월 28일

◀ 사진 = 손은택 2024년 11월

80x122cm 크기의 이 작품은 황마 끈, 아크릴 동전, 모델링 페이스트, 합판의 유채색으로 제작되어 기존의 예술적 경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재료를 혼합하여 아주 미묘한 미적 효과를 구현합니다. 이 작품은 깊은 감정적 · 지적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질감 · 형태 · 상징을 조작하는 작가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 부활 23-18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금빛 부채꼴 구조로, 움직임과 출현을 모두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마 끈과 모델링 페이스트로 만든 빛나는 호(弧) 즉 아크는 의도적이면서도 유기적인 리듬으로 펼쳐지며 부활과 초월을 상징합니다. 특히 황마 끈이라는 재료의 선택은 소박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작가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질감이 느껴지는 표면의 촉각적 특성은 혼돈에서 깨어나는 느낌을 전달하는 거칠고 거친 표면을 만져보도록 유도하여 관객과 감각적인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작품의 제목인 '부활'은 해석의 층위를 더합니다. 부활은 본질적으로 재생과 변화의 행위이며, 이는 작가 자신의 창작 과정을 반영합니다. 황부용 작가의 작품은 고대 장인 정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현대적인 시각으로 표현합니다. 황금빛 톤의 빛과 질감의 상호작용은 삶과 죽음, 영적 재생이라는 주제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작품에 박힌 아크릴 동전 하나하나가 과거의 경험, 깨달음의 순간, 역사의 파편과 같은 상징이 되어 이 우주적 재생의 장에 아름답게 매달려 있습니다.

모델링 페이스트와 오일 컬러를 사용해 전통적인 평면성에 도전하는 조각적 품질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작품에 강력한 입체감을 부여하는 복잡한 부조(浮彫)가 탄생했습니다. 곡선 · 흐르는 선 · 원형 요소는 마치 의식처럼 보이며 보는 사람을 원초적이면서도 매우 개인적인 무언가와 연결시켜 줍니다. 마치 작품 자체가 살아 숨 쉬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부활을 시각적으로 은유하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풍부한 노란색과 금빛이 주를 이루는 황부용 작가의 색채 선택은 깨달음과 신성한 에너지라는 주제를 더욱 강조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금색은 태양 · 지혜 · 영생을 상징하며, 노란색의 따뜻한 색조는 희망과 낙관적인 느낌을 줍니다. 황부용 작가의 정교한 유화물감 처리는 작품 전체에 광채를 더해 활력과 영적 상승의 빛나는 상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예술적 경계를 넓히고 기존의 인식에 도전하는 작품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활 23-18'이 예술의 미래 지구촌 걸작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황부용 작가의 독특함은 고풍과 현대를 혼합하여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서도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한 작품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삶의 순환적 본질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신적 · 실존적 진리를 전달하는 예술의 지속적인 힘을 생각하게 합니다.

황부용 작가의 작품은 그 자체로 걸작일 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의 미래를 형성할 작가의 놀라운 재능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의 창의적인 비전은 재료와 형식에 대한 숙달과 결합하여 그를 글로벌 현대 미술가의 선두에 서게 했습니다. '부활 23-18'에서 황부용 작가는 단순히 부활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대의 상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자신만의 예술적 재탄생을 통해 부활을 구현합니다.

예술의 미래 지구촌 걸작상은 단순한 시각적 매력을 넘어 세계 예술계에 지속적인 공헌을 한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황부용 작가의 '부활 23-18'은 형태와 개념 모두에서 부활의 정신을 담아낸 심오하고 질감이 있으며 명상적인 작품입니다. 이 상을 수상한 황부용 작가는 유별난 역량과 독특한 비전으로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며 예술의 미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Professional Art Review: 'Resurrection 23-18/ 2023' by Buyong Hwang Future of Art Global Masterpiece Award Jury Board and Marta Puig, Editor of Contemporary Art Curator Magazine, September 28, 2024 in Barcelona, Spain

Buyong Hwang's Resurrection 23-18, 2023, stands as a radiant testament to artistic brilliance and material innovation, a masterpiece that has justifiably earned the esteemed Future of Art Global Masterpiece Award. Measuring 80x122cm and crafted from jute string, acrylic coins, modeling paste, and oil colors on plywood, this work transcends conventional artistic boundaries, blending diverse materials to achieve an almost ethereal aesthetic impact. The piece evokes profound emotional and intellectual engagement, while also exemplifying the artist's genius in manipulating texture, form, and symbolism.

At first glance, Resurrection 23-18 appears as a pulsating, golden fan-like structure stretching outward, suggesting both motion and emergence. The radiant arcs, created from jute string and modeling paste, unfurl with a deliberate yet organic rhythm, symbolizing rebirth and transcendence. The choice of material, especially jute string, speaks to the artist's capacity to elevate humble and everyday objects into the realm of the divine. The tactile quality of the piece, with its textured surface, engages the viewer in a sensory dialogue, urging us to touch, to feel the raw and rugged surface that conveys a sense of awakening from chaos.

The title of the work, Resurrection, adds further layers of interpretation. Resurrection is, by nature, an act of renewal and transformation, which mirrors the artist's own creative process. Hwang's work speaks to a revival of ancient forms of craftsmanship but presented through a thoroughly contemporary lens. The interplay of light and texture in the golden tones invites reflection on themes of life, death, and spiritual regeneration. Each acrylic coin embedded in the composition becomes a symbol - perhaps of past experiences, moments of enlightenment, or fragments of history - beautifully suspended in this cosmic field of renewal.

The use of modeling paste and oil colors creates a sculptural quality that challenges traditional flatness, resulting in an intricate relief that gives the artwork a powerful three-dimensional presence. The curves, flowing lines, and circular elements in the design seem almost ritualistic, connecting the viewer to something primal yet deeply personal. There is an undeniable sense of movement, as if the piece itself is alive, breathing, and continuously evolving - a visual metaphor for resurrection as a dynamic and ongoing process.

Hwang's choice of color palette, dominated by rich yellows and golds, reinforces the theme of enlightenment and divine energy. Gold, in many cultures, symbolizes the sun, wisdom, and eternal life, while the warmth of the yellow hues instills a sense of hope and optimism. Hwang's sophisticated handling of oil paints adds an additional layer of luminosity, transforming the entire piece into a radiant symbol of vitality and spiritual ascent.

The fact that Resurrection 23-18 won the Future of Art Global Masterpiece Award is not surprising, as the jury recognizes works that push artistic boundaries and challenge conventional perceptions. Hwang's genius lies in his ability to blend the archaic and the modern, to create a piece that is both deeply rooted in tradition and yet revolutionary in its execution. This work is a statement of timelessness, inviting the viewer to contemplate not only the cyclical nature of life but also the enduring power of art to convey complex spiritual and existential truths.

Hwang's artwork is not just a masterpiece in its own right, but a declaration of his remarkable talent and potential to shape the future of contemporary art. His creative vision, combined with his mastery of material and form, places him at the forefront of global contemporary artists. In Resurrection 23-18, Hwang does not merely represent resurrection; he enacts it through his own artistic rebirth, breathing new life into ancient symbols, imbuing them with contemporary relevance.

The Future of Art Global Masterpiece Award celebrates artists whose works transcend mere visual appeal to become lasting contributions to the global art landscape. Buyong Hwang's Resurrection 23-18 is a profound, textured, and meditative work that captures the spirit of rebirth in both form and concept. As a recipient of this award, Hwang is recognized as an artist whose influence will continue to shape the future of art, inspiring generations to come with his extraordinary talent and unique vision.

은행나무 색조 속 부활의 메아리

은행잎의 맥은 태초부터 반복적으로 축적되어 온 생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하즈라 살리나스 아토나우 편집장
2024년 5월 6일

시각적 조화의 마에스트로

예술적 혁신의 영역에서 황부용은 자신의 풍부한 역사와 독특한 창의적 비전을 결합해 저명한 인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황부용은 28세에 유명 미술 잡지가 전국 대학교수 50명의 자문을 받아 선정한 한국 10대 그래픽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1987년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IAA 주최 국제 포스터 살롱에서 2등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수상은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에서 그의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황부용은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전업 화가로 전향하며 33년간의 그래픽 디자인 인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예술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황부용의 회화로의 전환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성찰과 영감의 절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은퇴와 그 이후의 인생 단계에 대한 콜린 포브스의 관점을 통해 그래픽 디자인 이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에서 10년간 이어진 영적 탐구는 그의 열망을 구체화했고, 58세에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매체의 변화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광활한 지평에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기로 한 그의 창작 정신의 심오한 재정립이었습니다.

은행나무의 메아리

황부용의 예술적 스타일은 자연의 본질적인 패턴과 지속적인 주제에 대한 매혹적인 탐구입니다. 침엽수와 활엽수의

특성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은행나무는 황부용 작가에게 중심적인 뮤즈 역할을 합니다. 은행나무에 대한 그의 매력은 단순히 식물학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존재의 개념에 대한 나무의 탄력성과 상징적 연관성을 반영하는 깊은 철학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황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은행나무의 고대 혈통과 시대를 관통하는 생존력, 장수와 회복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은행나무를 탐구합니다. 은행나무에 대한 이러한 주제적 집중을 통해 황 작가는 예술적 표현과 심오한 실존적 성찰을 결합해 삶과 자연의 영원한 상호 작용에 공명하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황 작가의 창작 안식처는 그의 집이며, 소박한 공간에서 예술적 사색에 잠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은 스튜디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황 작가는 주변 환경에서 위안과 영감을 얻으며 예술적 과정에서 성찰과 개성의 본질을 강조합니다. 고독한 노력인 그림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규모에 관계없이 어떤 공간에서도 위대한 예술이 탄생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환경에서 황 작가는 자신의 창조적 에너지를 직면하고 활용하며 시각적으로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내면과 인간 경험의 폭넓은 태피스트리를 깊이 반영하는 작품을 제작합니다.

황부용에게 영감을 준 인물들

황부용의 예술적 변모는 미술계의 상징적인 인물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작품은 황부용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그의 다작과 지속적인 유산은 회화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 오키프의 활기차고 관능적인 꽃 캔버스는 그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그림에 유사한 활력과 표현력을 불어넣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간'을 주제로 한 게오르그 바젤리츠의 작품을 접한 후 그의 예술적 내러티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부활'이라는 자신의 개념을 탐구하는 데 철학적, 주제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과거의 거장들과의 이러한 예술적 대화는 황부용의 창의적 접근 방식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을 풍부한 역사적, 개념적 계보에 안착시켜 그의 예술적 진화와 작품에 스며든 주제적 흐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회화로의 여정은 지속적인 진화와 새로운 예술적 지평에 대한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전환은 단순한 매체의 전환이 아니라 그의 창의적 정체성을 심오한 재정의였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힐링 그래피즘 아티스트'에서 '부활 아티스트'로의 전환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개인적인 신념에 더 깊이 관여하고 갱신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예술적 영향에 참여하고 창의적인 여정에 적응적으로 접근하는 그의 모습은 예술의 변화하는 힘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색채와 탄력의 교향곡

황부용은 컬렉션의 특정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예술적 비전의 깊이와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은행잎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부조 단색화는 자연의 우아함과 작가의 해석적 렌즈가 융합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형태, 질감, 상징에 대한 역동적인 탐구를 통해 은행잎의 맥이 탄력성과 연속성에 대한 은유가 됩니다. 여기에 아크릴 동전이 더해져 고난과 승리의 순환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의 층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영감과 상징적 해석의 조화는 자연계의 관찰을 개인적인 의미와 보편적 주제가 담긴 심오한 예술적 표현으로 전환하는 황 작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황부용 작가의 매체 선택은 그의 예술적 실천의 의도적인 측면으로, 그의 탐구적 성격과 주제적 깊이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유화와 수채화에서 부조 단색화로의 전환은 표현적 혁신을 위한 그의 지속적인 탐구를 의미합니다. 연필 스케치, 황마 끈, 플라스틱 동전, 세심한 물감 레이어링을 포함하는 이 기법은 황부용 작가의 수작업 방식과 각 작품에 실질적인 질감과 깊이를 불어넣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법론적 진화는 예술적 성장에 대한 그의 헌신과 부활과 자연과 인간 경험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그의 주제적 초점을 요약하는 독특한 시각적 언어에 대한 그의 확고한 추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황 작가는 기술적 다양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깊이 성찰하며 자연과 삶의 리듬에 공명하는 예술에 대한 그의 헌신을 재확인합니다.

BUYONG HWANG:
ECHOES OF RESURRECTION IN GINKGO HUES

The veins in the ginkgo leaf symbolize the will to survive that has been repeatedly accumulated since the beginning of time.



Hajra Salinas
Editor in Chief of ATTONAU!/
May 6, 2024

A Maestro of Visual Harmony/ In the realm of artistic innovation, Buyong Hwang emerges as a distinguished figure, intertwining his rich history with a unique creative vision. At 28, Hwang was heralded as one of South Korea's top ten graphic designers, an accolade bestowed by a renowned art magazine after consulting with 50 university professors nationwide. His prowess was further acknowledged internationally when he clinched the second prize at the UNESCO-IAA organized International Poster Salon in Paris in 1987. This recognition underscored his burgeoning influence in Korean graphic design. Yet, in 2009, Hwang made a profound pivot, transitioning from a celebrated graphic designer to a full-time painter, ending a 33-year chapter in graphic design to embark on a new artistic journey. Hwang's transition to painting was not impulsive but a culmination of introspection and inspiration. In 1995, at an international design conference in Beijing, Colin Forbes's perspective on retirement and subsequent life stages triggered Hwang's contemplation about his future beyond graphic design. His decade-long spiritual quest in the early mornings at church crystallized his aspirations, leading him to embrace painting at 58. This shift was not merely a change in medium but a profound realignment of his creative ethos, choosing to explore new horizons in the vast landscape of art.

Buyong Hwang: Echoes of the Ginkgo/ The artistic style of Buyong Hwang is a captivating exploration of nature's intrinsic patterns and enduring themes. The ginkgo tree, with its unique blend of coniferous and broadleaf characteristics, serves as a central muse for Hwang. His fascination with the ginkgo isn't just botanical but deeply philosophical, reflecting on the tree's resilience and symbolic connection to the concepts of time and existence. Through his art, Hwang delves into the tree's ancient lineage, its survival through epochs, and its emblematic representation of longevity and resilience. This thematic focus on the ginkgo tree allows Hwang to intertwine his artistic expression with profound existential reflections, creating works that resonate with the timeless interplay of life and nature. Hwang's creative sanctuary is his home, a modest space where he contends with his artistic musings. Despite the limitations of a smaller studio, Hwang finds solace and inspiration in his surroundings, emphasizing the essence of introspection and individuality in the artistic process. His approach to painting, a solitary endeavor, is a testament to his belief that great art can emerge from any space, regardless of its size. This personal and intimate environment is where Hwang confronts and harnesses his creative energies, crafting pieces that are not only visually striking but deeply reflective of his inner world and the broader tapestry of human experience.

The Inspirational Luminaries behind Buyong Hwang/ Buyong Hwang's artistic metamorphosis was profoundly influenced by iconic figures in the art world. The decision to pivot to painting was catalyzed by the life and works of Vincent Van Gogh, whose prolific output and enduring legacy left an indelible mark on Hwang. However, it was Georgia O'Keefe's vibrant and



sensual floral canvases that deeply resonated with him, inspiring him to infuse his paintings with a similar vitality and expressiveness. Hwang's artistic narrative took a new turn after encountering the works of Georg Baselitz, a pivotal figure whose thematic focus on 'Time' provided Hwang with a philosophical and thematic framework to explore his own concept of 'Resurrection'. These artistic dialogues with past masters not only shaped Hwang's creative approach but also anchored his work in a rich historical and conceptual lineage, offer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his artistic evolution and the thematic undercurrents that permeate his oeuvre. Hwang's journey into painting is a testament to his belief in continual evolution and the pursuit of new artistic horizons. His transition was not just a shift in medium but a profound redefinition of his creative identity. This evolution is encapsulated in his transition from being known as a 'Healing Graphism artist' to a 'Resurrection artist', a change that signifies a deeper engagement with his personal beliefs and a commitment to exploring the themes of renewal and rebirth.

Hwang's engagement with different artistic influences and his adaptive approach to his creative journey underscore his belief in the transformative power of art and the importance of remaining receptive to new ideas and inspirations.

Buyong Hwang: A Symphony of Color and Resilience/ In discussing a specific piece from his collection, Buyong Hwang reveals the depth and complexity of his artistic vision. His relief monochromatic paintings, particularly those inspired by the ginkgo leaf, embody a confluence of nature's elegance and the artist's interpretive lens. These works are not mere representations but dynamic explorations of form, texture, and symbolism, where the ginkgo leaf's veins become metaphors for resilience and continuity. The incorporation of acrylic coins introduces an additional layer of meaning, symbolizing the cyclical nature of struggle and triumph. This blend of natural inspiration and symbolic interpretation illustrates Hwang's ability to transform observations from the natural world into profound artistic expressions, imbued with personal significance and universal themes. Hwang's choice of medium is a deliberate aspect of his artistic practice, reflecting his exploratory nature and commitment to thematic depth. The transition from oil paintings and watercolors to relief monochromatic painting signifies his ongoing quest for expressive innovation. This technique, involving pencil sketches, jute string, plastic coins, and a meticulous layering of paint, exemplifies Hwang's hands-on approach and his desire to infuse each piece with a tangible sense of texture and depth. This methodological evolution underscores Hwang's dedication to artistic growth and his unwavering pursuit of a unique visual language that encapsulates his thematic focus on resurrection and the enduring interplay between nature and human experience. Through these explorations, Hwang not only showcases his technical versatility but also reaffirms his commitment to an artistry that is continually evolving, deeply reflective, and resonant with the rhythms of nature and life itself.



부활 26-06. 2026.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6-05. 2026.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6-04. 2026.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6-10. 2026.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6-11. 2026.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6-12. 2026.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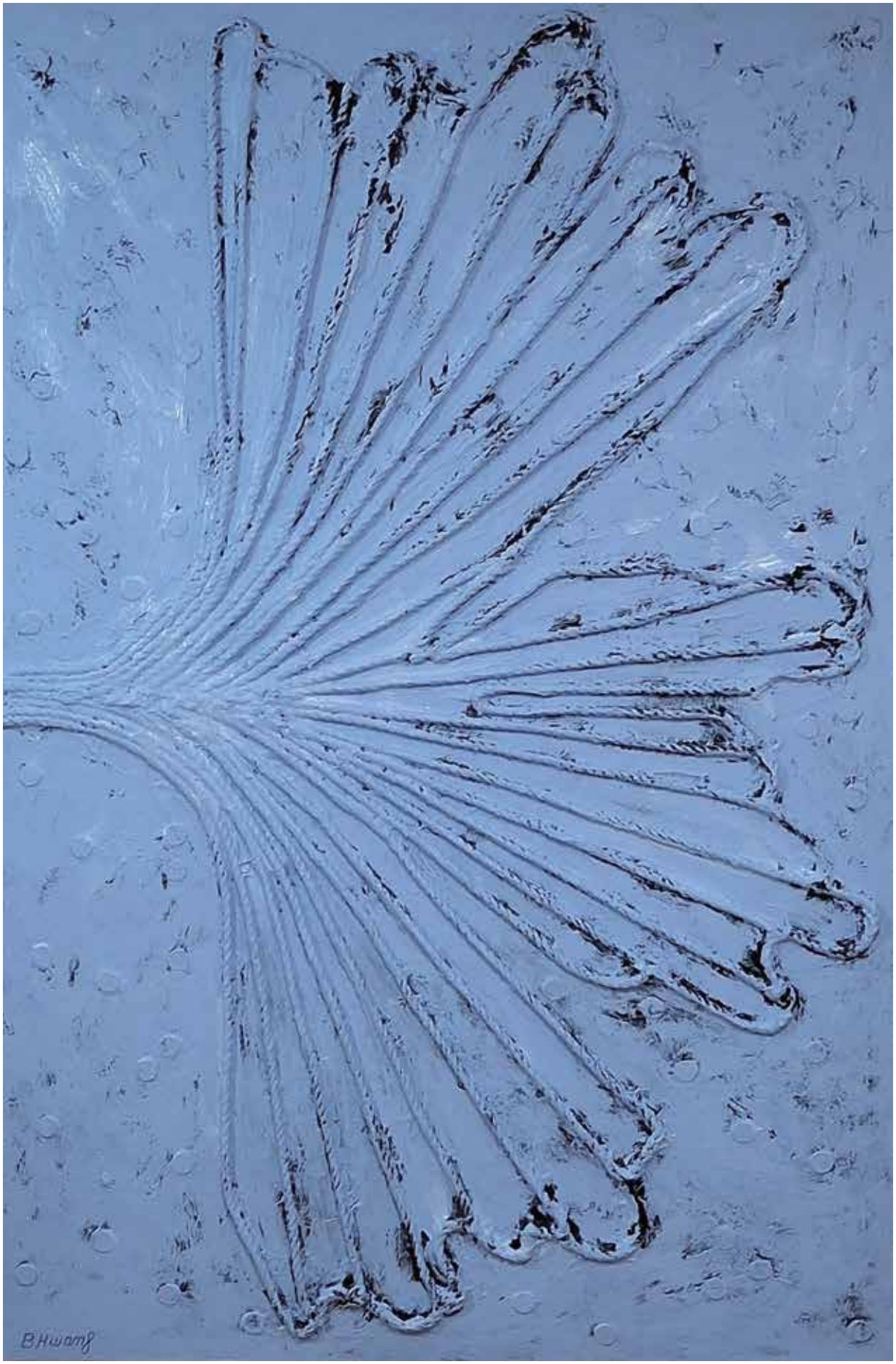
부활 25-12.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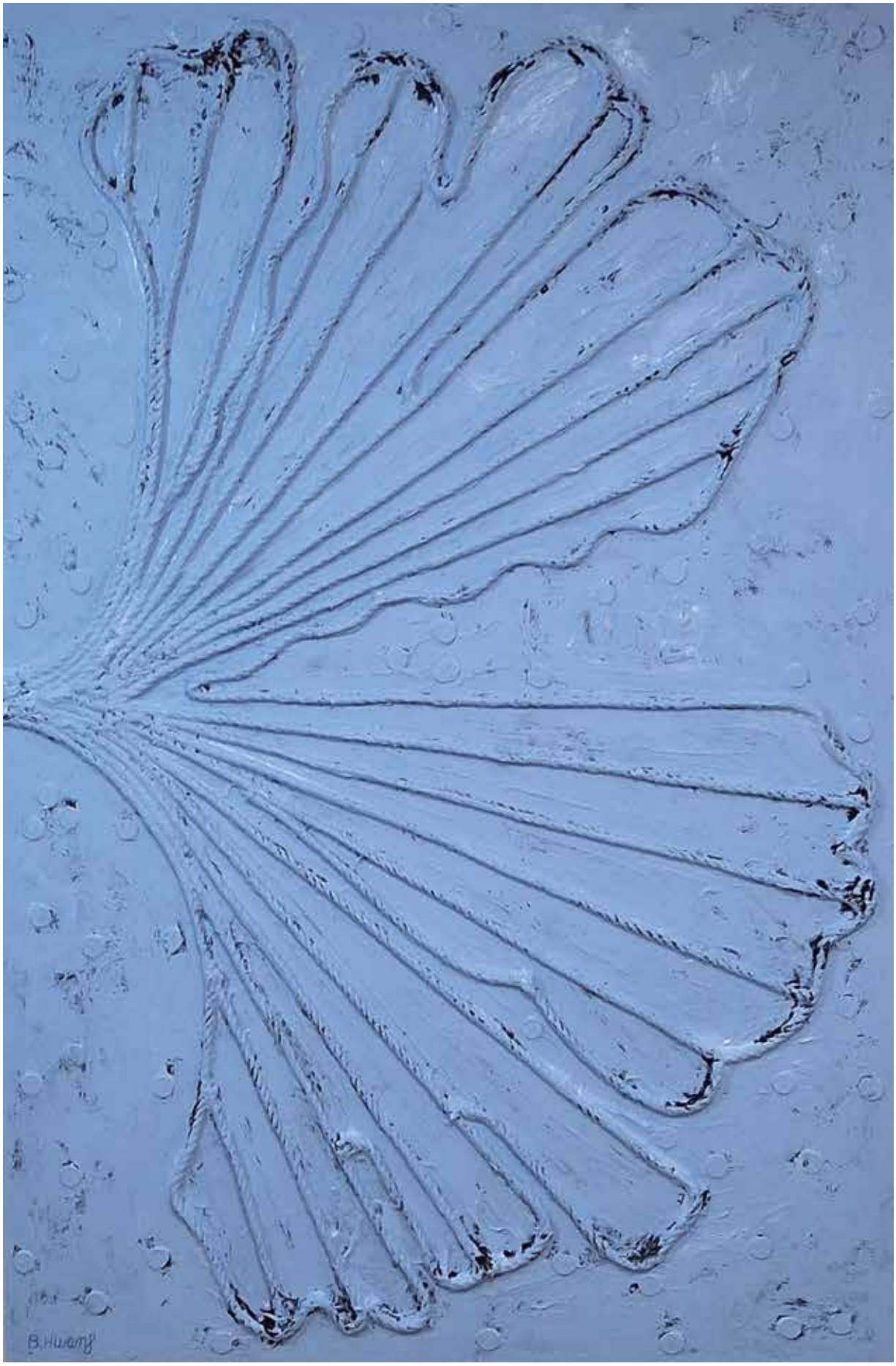
부활 25-11.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5-10.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5-09.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5-08.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5-07.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5-06.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5-03.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5-02.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4-22.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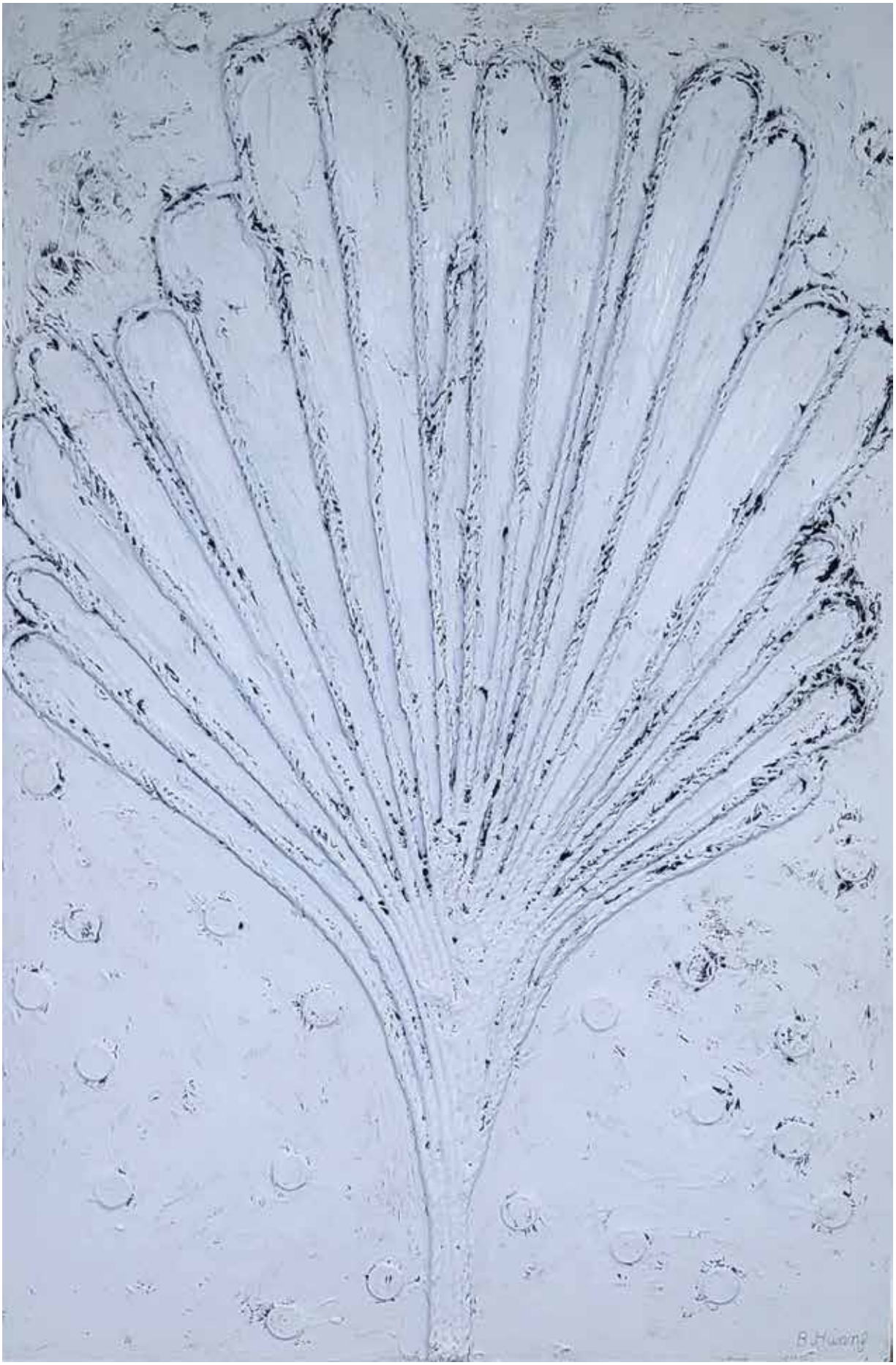
부활 24-21.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4-20.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부활 24-11.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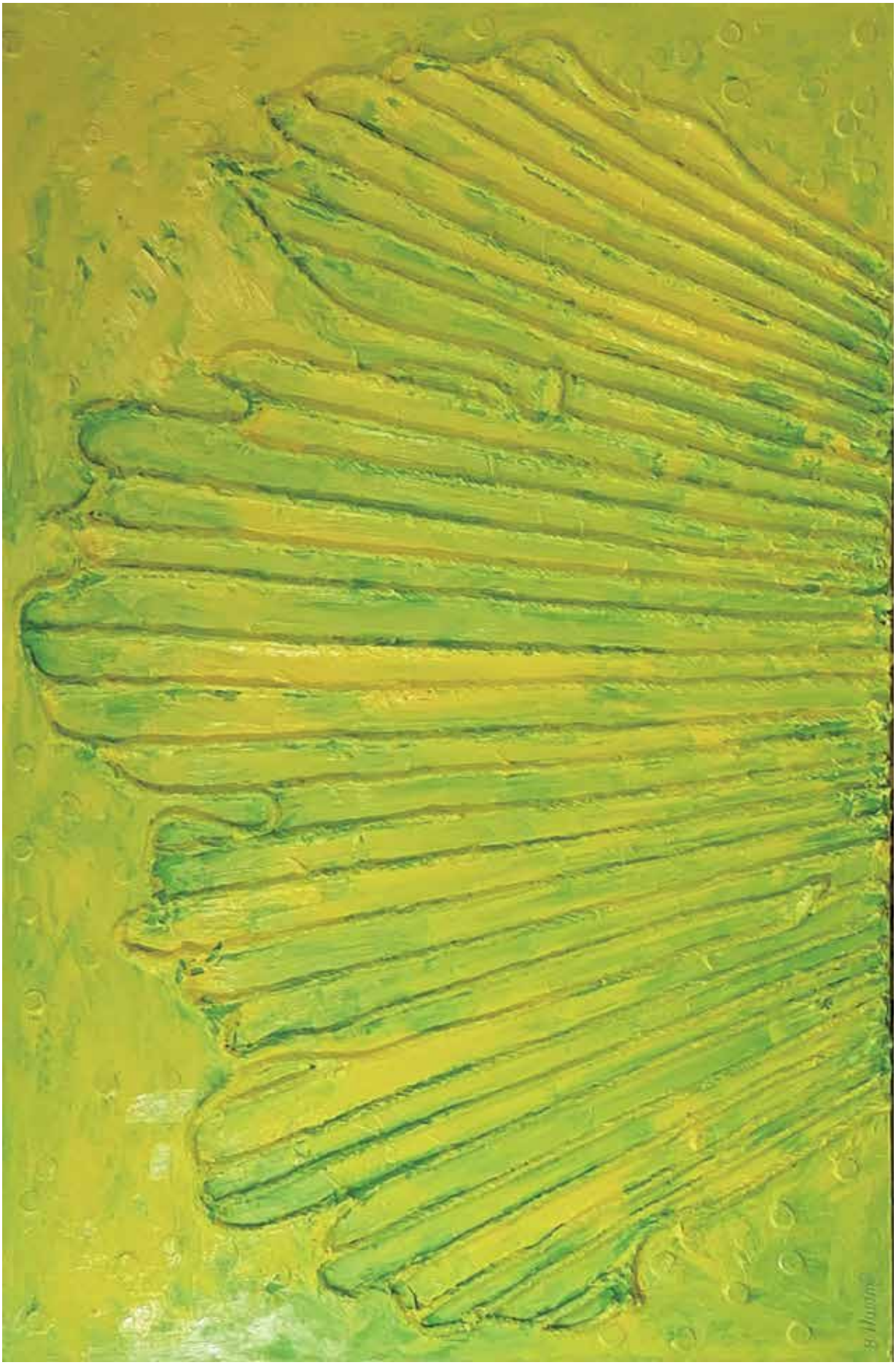
부활 23-19. 2023.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122x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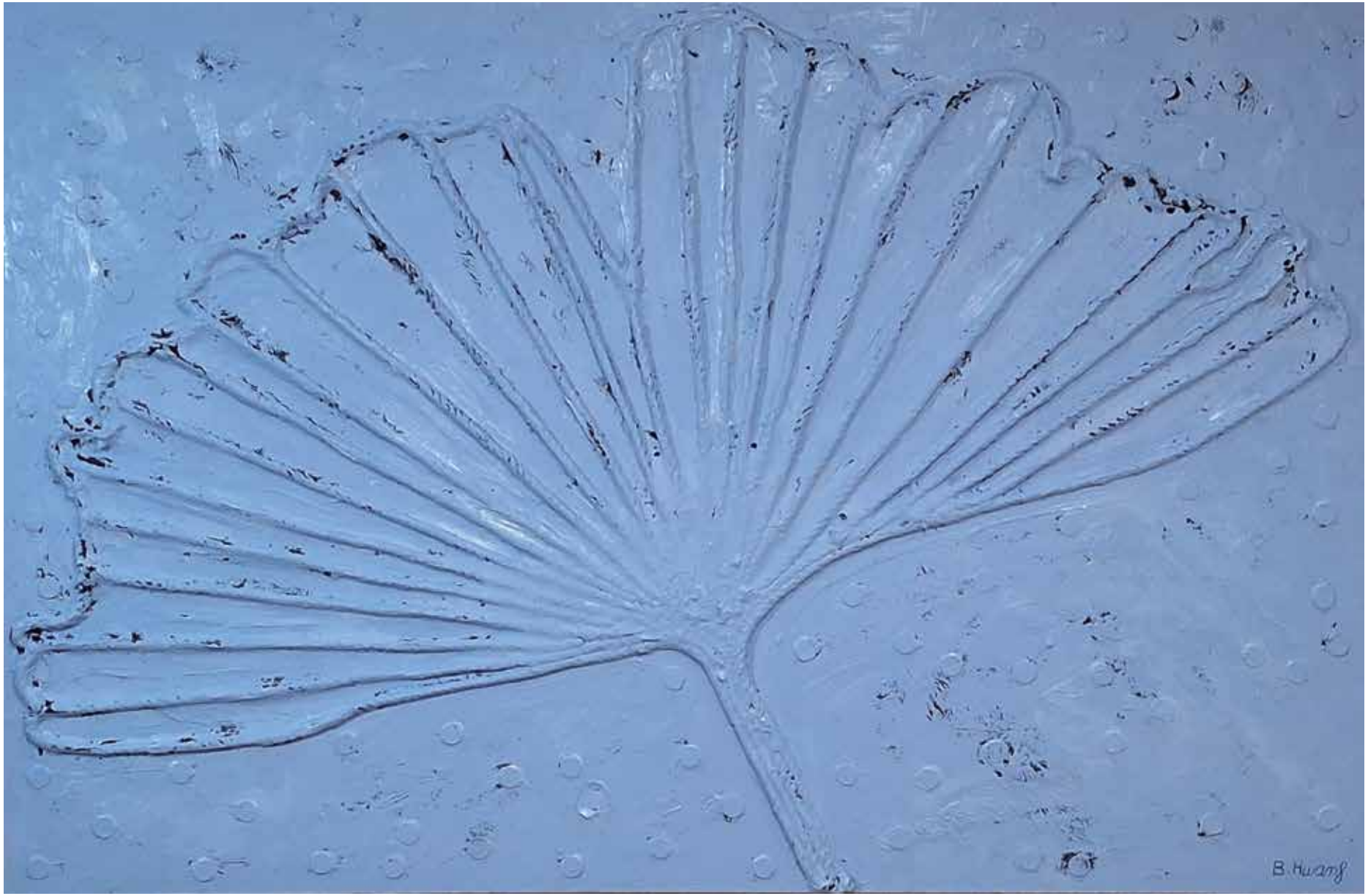
부활 26-09. 2026.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6-08, 2026,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6-07. 2026.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5-05.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5-04,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5-01, 2025,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4-19.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4-18.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4-17.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4-16,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4-15.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4-14.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4-13.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4-12.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3-21, 2023,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3-20, 2023,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래질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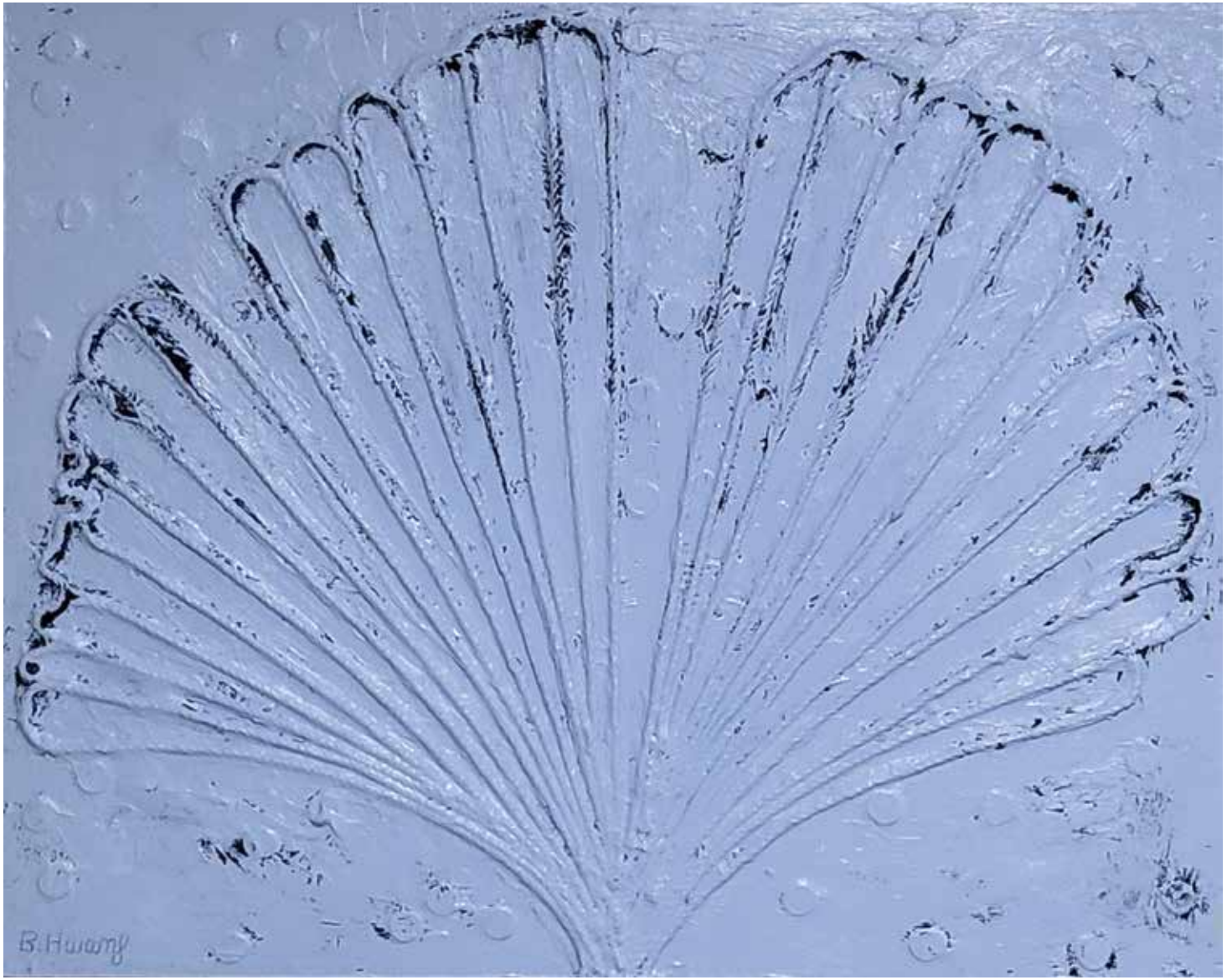
부활 23-18, 2023,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80x122cm



부활 24-09.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72.7x6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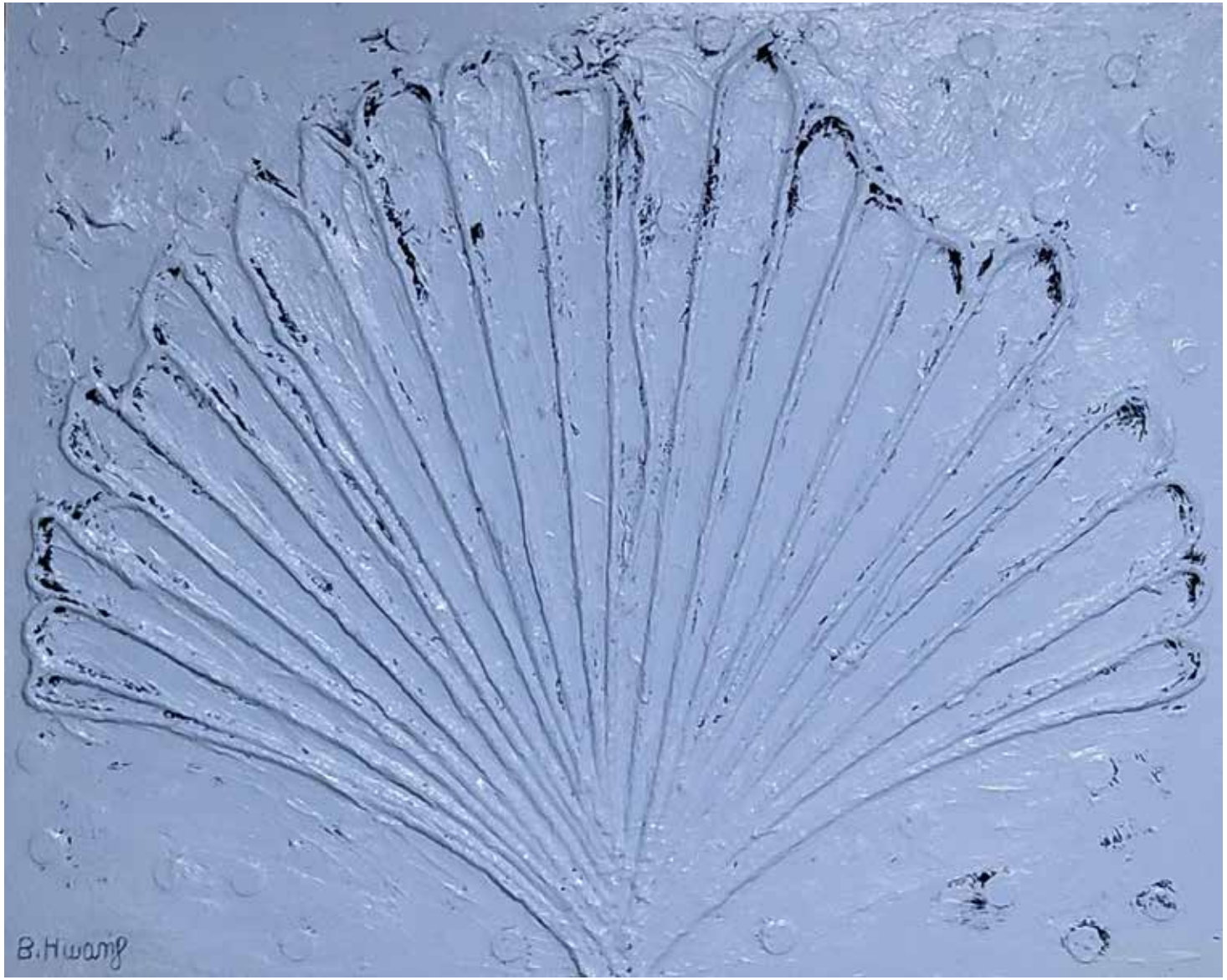
부활 24-08.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72.7x60.6cm



부활 24-07.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60.6x72.7cm



부활 24-06.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60.6x72.7cm



부활 24-05.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60.6x72.7cm



부활 24-04,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60.6x72.7cm



부활 24-03,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60.6x72.7cm



부활 24-02.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60.6x72.7cm



부활 24-01. 2024.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60.6x72.7cm



부활 23-17. 2023. 합판 위에 황마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60.6x72.7cm



부활 23-16. 2023.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72.7x60.6cm



부활 23-15. 2023.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60.6x72.7cm



부활 23-14. 2023. 합판 위에 황마 끈과 코인, 모델링 페이스트 그리고 오일컬러. 60.6x72.7cm

1951년 부산 출생

학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시각디자인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상업미술 전공 졸업

경력

2009년부터 현재까지 힐링 그래피즘 스튜디오 대표
조선일보사 편집국 신문디자인 전문위원 역임
중앙일보사 편집국 신문디자인 전문위원 역임
디자인연구소 디자인브리지 대표 역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디자인실장 역임
명지전문대학 전임강사 및 조교수 역임

조형

2009년 디자인계 33년 활동을 마감하고 전업 조형 활동 시작

개인전

2024년 황부용 포스터전 “부활” / 갤러리 내일, 서울
2023년 황부용 초대전 “부활” / 갤러리 내일, 서울
2022년 황부용 초대전 “부활” / 갤러리 온, 서울
2021년 황부용 초대전 “부활” / 한국문화원, 앙카라, 터키
2020년 황부용 초대전 “부활” / 에이비갤러리, 서울
2018년 황부용 힐링 그래피즘 “춤추는 사람들” / 디자인미술관, 예술의전당, 서울
2015년 황부용 힐링 그래피즘 “춤추는 사람들” / 선갤러리, 서울
2011년 황부용 힐링 그래피즘/ 디자인미술관, 예술의전당, 서울

그룹전

2026년 중력과 가벼움 21인 국제전/ 갤러리 내일, 서울
2024년 놀라운 소우주 15인 국제전/ 갤러리 내일, 서울
2024년 앙카라 아트페어/ ATO 콩그레시움, 앙카라, 터키
2024년 월드 아트 엑스포 2024/ COEX, 서울
2023년 아트페어 대구 2023/ EXCO, 대구
2023년 아트콘택트 이스탄불/ 닥터 미마르 카디르 톱바스 .....퍼포먼스 앤 아트센터, 이스탄불, 터키
2023년 앙카라 아트페어/ ATO 콩그레시움, 앙카라, 터키
2023년 제주 아트페스타 아트페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
2022년 인간의 손길 10인 국제전/ 갤러리 내일, 서울
2022년 제17회 컨템퍼러리 이스탄불 아트페어/ 테르산, 골든혼, 이스탄불, 터키
2022년 보드룸 아트페어/ 헤로도토스문화센터, 보드룸, 터키
2022년 아트콘택트 이스탄불/ 예니카피 유라시아 쇼우 앤 아트센터, 이스탄불, 터키
2022년 4인전, 갤러리 M/ 아르마다쇼핑몰, 앙카라, 터키
2022년 앙카라 아트페어/ ATO 콩그레시움, 앙카라, 터키
2022년 아트스퍼 현대 미술품 온라인 판매 시장/ 파리, 프랑스
2022년 제16회 아르테 라구나 월드 온라인 미술 전시회/ 아스날 노드, 베니스, 이탈리아
2021년 제16회 컨템퍼러리 이스탄불 아트페어/ 테르산, 골든혼, 이스탄불, 터키
2021년 제15회 아르테 라구나 월드 온라인 미술 전시회/ 아스날 노드, 베니스, 이탈리아
2021년 제7회 나뭇잎과 꽃잎 온라인 미술 전시회/ 퓨전아트 갤러리, 팜스프링스, 캘리포니아주, 미국
2021년 제6회 예술가의 선택 온라인 미술 전시회/ 퓨전아트 갤러리, 팜스프링스, 캘리포니아주, 미국
2021년 호흡 테마전/ 마이마이크로 갤러리, 밀라노, 이탈리아
2021년 호흡 테마전/ 산테우페미아 갤러리, 베니스, 이탈리아
2020년 제6회 나뭇잎과 꽃잎 온라인 미술 전시회/ 퓨전아트 갤러리, 팜스프링스, 캘리포니아주, 미국
2020년 창립 5주년 기념 온라인 미술 전시회/ 퓨전아트 갤러리, 팜스프링스, 캘리포니아주, 미국
2020년 제2회 라인 · 세이프 · 오브제 온라인 미술 전시회/ 퓨전아트 갤러리, 팜스프링스, 캘리포니아주, 미국
2020년 블루 아트페어/ 화백 컨벤션센터, 경주, 경상북도
2019년 파리 컨템퍼러리 아트 쇼우/ 히볼리 빌딩, 파리, 프랑스
2019년 타슈켄트 한국현대미술전/ 고려인문화센터,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2019년 제 14회 컨템퍼러리 이스탄불 아트페어/ 콩그레스 센터, 이스탄불, 터키
2019년 스텝 이스탄불 아트페어/ 톰톰 디자인후드, 이스탄불, 터키
2019년 한국 현대미술 대표작가전/ 한국문화원, 앙카라, 터키
2019년 앙카라 아트페어/ ATO 콩그레시움, 앙카라, 터키
2018년 타슈켄트 한국현대미술전/ 시립 미술관,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2018년 제13회 컨템퍼러리 이스탄불 아트페어/ 콩그레스 센터, 이스탄불, 터키

언론 보도

2025년 1월 영국 런던 MOT (Masters of Today) 출판사 발행 현대미술가 10인 선집 제7권에 26페이지에 걸쳐 작품 및 작가 소개
2024년 5월 6일자 회화 면에 작품 및 작가 소개/ 하즈라 살리나스 편집장, 아토나우, 오사카, 일본
2022년 2월 21일자 문화면에 작품 및 작가 소개/ 조선희 기자, 동아일보, 서울, 대한민국
2020년 4월 19일자 문화면에 작품 및 작가 소개/ 손영옥 미술 문화재전문기자, 국민일보, 서울, 대한민국
2019년 월간 더 디플로마틱 옵서버 5월호에 작품 및 작가 소개/ 에르투룰 오날프 기자, 더 디플로마틱 옵서버, 이스탄불, 터키
2015년 월간 춤과사람들 5월호에 작품 및 작가 소개/ 양은혜 기자, 월간 춤과사람들, 서울, 대한민국
2015년 월간 디자인 443호에 작품 및 작가 소개 / 김민정 기자, 월간 디자인, 서울, 대한민국

수상

202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CAC (Contemporary Art Curator) 잡지사 선정 예술의 미래 지구촌 걸작상 수상
1987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ESCO-IA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주최 국제포스터살롱에서 2등상 수상
1979년 중앙일보사 발행 계간 미술 12호에 대한민국 10대 그래픽디자이너로 선정

1951, Born in Busan Korea

SOLO EXHIBITIONS

2024, Buyong Hwang Posters Exhibition "Resurrection", Gallery NAEIL, Seoul, Korea
2023, Buyong Hwang Invitational Exhibition "Resurrection", Gallery NAEIL, Seoul, Korea
2022, Buyong Hwang Invitational Exhibition "Resurrection", Gallery ON, Seoul, Korea
2021, Buyong Hwang Invitational Exhibition "Resurrection", Korean Cultural Center, Ankara, Turkey
2020, Buyong Hwang Invitational Exhibition "Resurrection", AB Gallery, Seoul, Korea
2018, Buyong Hwang Healing Graphism "The Dancers", Design Gallery,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2015, Buyong Hwang Healing Graphism "The Dancers", Sun Gallery, Seoul, Korea
2011, Buyong Hwang Healing Graphism, Design Gallery,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GROUP EXHIBITIONS

2026, "GRAVITY AND LEVITY", 21 contemporary artists international exhibition, Gallery Naeil, Seoul, Korea
2024, "MICROCOSMS OF WONDER", 15 contemporary artists international exhibition, Gallery Naeil, Seoul, Korea
2024, Art Ankara, Contemporary Art Fair 2023, ATO Congresium, Ankara, Turkey
2024, World Art Expo 2024, COEX, Seoul, Korea
2023, Art Fair Daegu, EXCO, Daegu, Korea
2023, ArtContact Istanbul Art Fair, Dr.Mimar Kadir Topbas Performance and Art Center, Istanbul, Turkey
2023, Art Ankara, Contemporary Art Fair 2023, ATO Congresium, Ankara, Turkey
2023, Jeju ArtFesta Art Fair, Jeju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eju, Korea
2022, "THE HUMAN TOUCH", 10 contemporary artists international exhibition, Gallery Naeil, Seoul, Korea
2022, The 17th Contemporary Istanbul International Art Fair, Tersane of the Golden Horn, Istanbul, Turkey
2022, Bodrum International Art Fair, Herodotus Cultural Center, Bodrum, Turkey
2022, ArtContact Istanbul Art Fair, Yenikapı Eurasia Show and Art Center, Istanbul, Turkey
2022, 4 Korean artists exhibition, Gallery M in Armada Shopping Mall, Ankara, Turkey.
2022, Art Ankara, Contemporary Art Fair 2022, ATO Congresium, Ankara, Turkey
2022, ARTSPER, a marketplace dedicated to the online sale of contemporary artworks, Paris, France
2022, The 16th Arte Laguna World Online Art Exhibition, Arsenale Nord, Venice, Italy
2021, The 16th Contemporary Istanbul International Art Fair, Tersane of the Golden Horn, Istanbul, Turkey
2021, The 15th Arte Laguna World Online Art Exhibition, Arsenale Nord, Venice, Italy
2021, The 7th Leaves & Petals Online Exhibition, Fusion-Art Gallery, Palm Springs, California, USA
2021, The 6th Annual Artist's Choice Online Art Exhibition Fusion-Art Gallery, Palm Springs, California, USA
2021, RESPIRO/BREATH, MyMicro Gallery, Milan, Italy
2020, Virtual Contemporary Istanbul International Art Fair, Istanbul, Turkey
2020, The 6th Leaves & Petals Online Exhibition, Fusion-Art Gallery, Palm Springs, California, USA
2020, The 5th Anniversary Online Art Exhibition, Fusion-Art Gallery, Palm Springs, California, USA
2020, The 2nd Annual Lines, Shapes & Objects Online Exhibition, Fusion-Art Gallery, Palm Springs, California, USA
2019, Paris Contemporary Art Show, Rivoli Bldg., Paris, France
2019, The 2nd Korean Contemporary Arts in Uzbekistan, Korean House of Culture and Arts, Tashkent, Uzbekistan
2019, The 14th Contemporary Istanbul International Art Fair, Congress Center, Istanbul , Turkey
2019, Step Istanbul International Art Fair, Tomtom Designhood, Istanbul, Turkey
2019, 12 Contemporary Korean Painters, 'The wind from SEOUL', Korean Cultural Center, Ankara, Turkey
2019, Art Ankara, Contemporary Art Fair 2019, ATO Congresium, Ankara, Turkey
2018, The 1st Korean Contemporary Arts in Uzbekistan, The Art Gallery of Uzbekistan, Tashkent, Uzbekistan
2018, The 13th Contemporary Istanbul International Art Fair, Congress Center, Istanbul , Turke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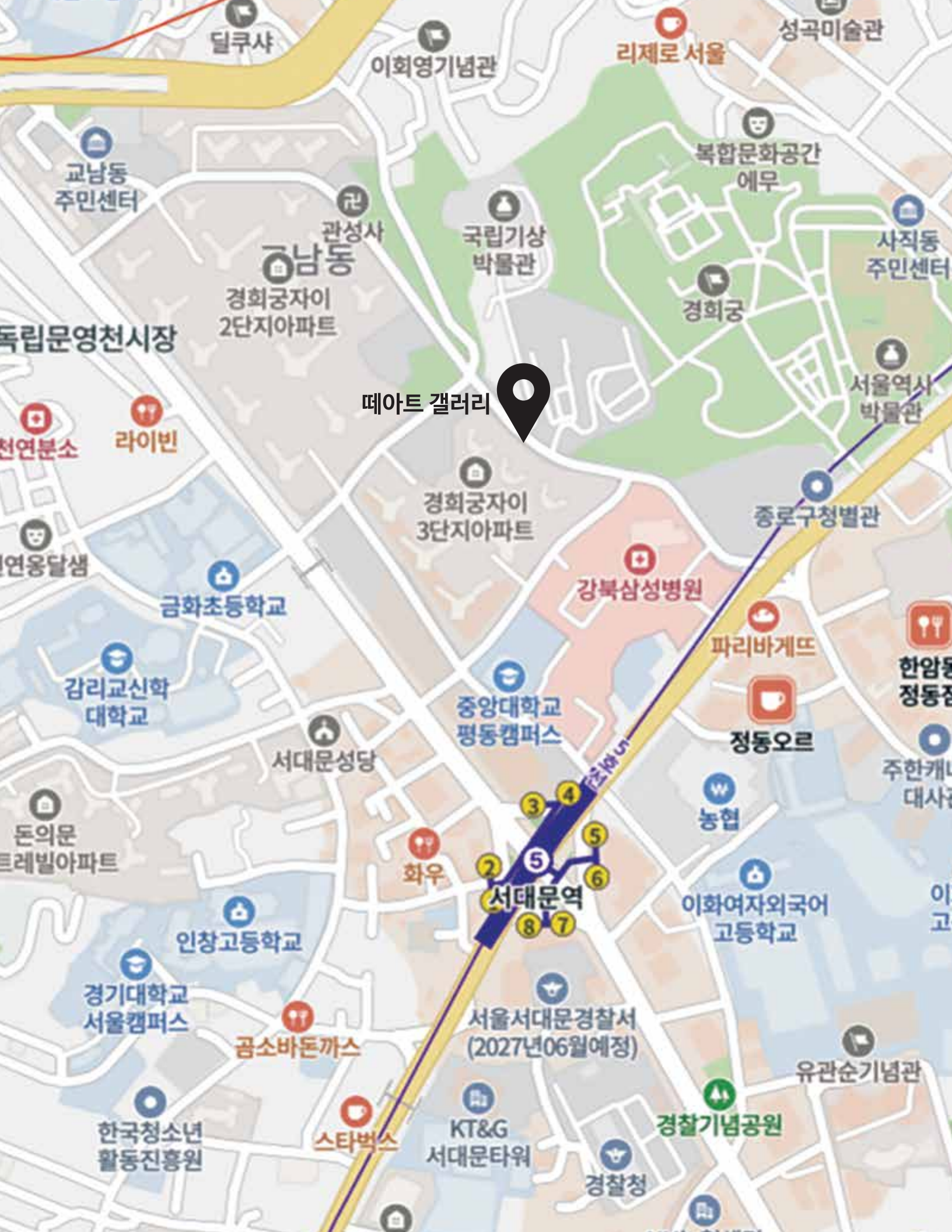
1979-1981, MFA i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t the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9-1973, Studied graphic design at the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REPORTS

2025, January, 26 pages review of Works and Painter, Published in Volume 7 of Top Ten Conemporary Artists, MOT (Masters of Today) Publishing, London, UK
2024, May 6th, A review of Works and Painter/ Hajra Salinas, ATTONAU!, Osaka, Japan
2022, February 21st, A review of Works and Painter/ Sun-hee Cho, The Daily newspaper Dong-A, Seoul, Korea
2020, April 19th, A review of Works and Painter/ Young-ok Sohn, The Daily newspaper Kukmin, Seoul, Korea
2019, May, A review of Works and Painter/ Ertugrul Onalp, Monthly The Diplomatic Observer, Istanbul, Turkey

AWARDS

2024, Future of Art, Global Masterpiece Award, CAC (Contemporary Art Curator), magazine, Barcelona, Spain
1987, Second prize, International Poster Salon, UNESCO-IA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t), Paris, France
1979, Quarterly magazine FINE ART No.12 published by The Daily newspaper JoongAng named Korea's top 10 graphic designers


딜쿠샤
이회영기념관
리제로 서울
성곡미술관
복합문화공간
에무
교남동
주민센터
관성사
국립기상
박물관
사직동
주민센터
교남동
경희궁자이
2단지아파트
경희궁
독립문영천시장
떼아트 갤러리
서울역사
박물관
천연분소
라이빈
경희궁자이
3단지아파트
종로구청별관
연옹달샘
강북삼성병원
금화초등학교
파리바게뜨
감리교신학
대학교
중앙대학교
평동캠퍼스
정동오르
서대문성당
농협
돈의문
트레빌아파트
화우
서대문역
이화여자외국어
고등학교
인창고등학교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곰소바돈까스
서울서대문경찰서
(2027년06월예정)
유관순기념관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스타벅스
KT&G
서대문타워
경찰기념공원
경찰청

▶ 아토나우의 평론에 대하여

이 캐더로그 속에는 2024년 5월 '하즈라 살리나스'가 저의 작품세계에 관해 쓴 평론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글을 읽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토나우는 과연 어떤 곳이며, 그곳에 실린 평론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진 글일까?" 그래서 제게 유리한 이야기만 골라서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확인한 내용을 가능한 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토나우'는 일본 오사카를 기반으로 현대미술과 작가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아트 플랫폼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작가와 작품, 전시와 미술계 이야기를 영어로 소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토나우'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이러한 국제적인 미술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습니다.

'아토나우'는 스스로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아트 블로그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5대 아트 블로그'와 같은 표현을 미술계 전체가 공인한 공식적인 순위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세계의 미술 매체를 평가하는 단일하고 권위 있는 국제기관이 존재하여 매년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정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세계 미술계가 객관적으로 공인한 절대적인 서열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토나우'를 신뢰하기 어려운 매체라고 단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 현대미술과 작가를 전문적으로 다뤄왔고, 다양한 국가의 작가와 미술 관련 콘텐츠를 꾸준히 영어로 발행하면서 국제적인 온라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 전문지들과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지만, 국제 현대미술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독립적인 온라인 아트 미디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균형 잡힌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즈라 살리나스'가 저에 관해 쓴 평론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 글 역시 필요 이상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이나 학술기관이 '황부용'이라는 작가를 공식적으로 평가한 논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 없이 작성된 개인적인 감상문으로만 치부할 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미술 전문 필자가 한 한국 작가의 작품을 관찰하고, 그 작품 속에서 자신이 발견한 조형적 특징과 철학적 의미를 독립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여 국제적인 온라인 미술매체를 통해 발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소중했던 것은 그 글에 붙을 수 있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디자인과 조형 작업을 해 온 한 사람의 작품이 국경과 언어를 건너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게 어떻게 읽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작품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실제보다 더 큰 권위를 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작가나 평론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세월이 함께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즈라 살리나스'의 글도 "세계적인 권위자가 '황부용'의 가치를 보증했다"는 의미로 읽기보다는, 한 해외 미술 전문 필자가 '황부용'의 작품세계를 바라보고 기록한 하나의 진지한 시선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게는 바로 그 정도의 평가가 가장 정직하고, 또한 가장 감사한 평가입니다.